

## ‘대학입시에서 고교간 학교 차 적용 문제’를 특별기획에 부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98년 7월 2일 개최한 전국 대학총장 세미나에서는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무시험 전형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은 현행 대학입학제도가 1997학년도에 도입된 이후 대학들이 다양하고 특성있는 대입전형 방법을 개발하여 왔으나, 아직도 수능능력시험 성적이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고, 과열과외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며, 대학을 획일적으로 서열화하는 등 비교육적 병폐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능능력시험 성적이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등 필답고사 성적 이외의 전형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선발하는 '무시험 특별전형'의 확대와, 특수한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학생은 고교 재학중에 언제든지 입학예약을 하는 '예약입학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대학입시와 관련된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총장들의 합의는 정부 당국과 여론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들이 무시험 전형제도 시행 계획을 연달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무시험 전형에서 현존하는 고교간 학력차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일부 대학이 '고교 등급제' 도입이라든가 '고교평가제' 실시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앞으로 대학들이 무시험 전형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대학입시에서 고교간 학교 차 적용 문제를 특별기획으로 다루어 대학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다음은 무시험 전형제도 논의에 대한 최근의 언론 보도 내용(98. 7~'98. 10)을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7월 6일** : 서울대 총장, 교육부 장관과 만나 '국제경쟁력이 있는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들을 연구중심대학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서울대가 각각 독자적인 준비를 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함.

• 서울대는 연구중심대학 육성안에 따라 논술 등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고교장 추천입학 전형을 모집 정원의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함.

**7월 8일** : 연세대, '99학년도 입시에서 모집정원의 20% 안에서 분야별 특기자과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를 선발하기로 함.

**7월 12일** : 연세대, 오는 9월 정원의 20%를 선발하는 수시모집에서 고교간 학력차이를 반영하는 새로운 전형방식 도입하기로 함. 최근 5년간 연세대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토대로 전국의 고교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전형방법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

- 경북대, 고려대, 전남대, 이화여대 등도 이러한 전형방식 도입을 검토중.

**7월 25일** : 서울시내 8개 사립대(연세대, 서강대, 고려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한양대, 경희대, 국민대) 총장들이 모여 무시험 전형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음.

- 고려대, 고교별 학력차를 학생부 성적에 반영하는 방법 검토중

**7월 29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에 '전국고교생 학업성취도 절대평가' 실시 제안

**8월 3일자** : 2002학년도부터 연세대·고려대·서울대·이화여대·한양대 등, 고교장 추천으로 입학생 선발 계획 발표

- 서울대, 무시험 추천전형에서 고교별 학력 격차를 반영하기 위해 성적, 인성, 봉사장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결정함.
- 고교등급제에 대해 일부 지역 고교의 찬성과 기타 지역 고교의 반대 입장이 분분함.

**8월 10일자** :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국고교 절대평가 성취도검사는 입사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함.

**8월 21일** : 교육부 장관, 대학입학전형에 고교별 등급제를 도입하지 않도록 대학들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고려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등은 고교별 등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함.

**9월 7일자** : 전국 일반계 고교간 수능시험 평균점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가 232점으로 나타남.

- 학교장 추천 전형의 추천자 선발 기준 놓고 고등학교측과 학부모측이 갈등 보임.

**9월 25일** : 교육부, 2002년도 입시에 무시험전형제 도입과 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대학은 연구중심대학 선정을 위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9월 30일** : 서울대, 2002년부터 도입될 무시험전형에서 고교간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단위 고교학력 평가고사 도입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한 것이 확인됨.

**10월 19일** : 교육부 장관, 고교등급제는 반교육적 성격이 강해 절대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함.